

한국사회의 다문화인식과 신념에 대한 연구

안 득 기*

목 차

- | | |
|---------------------|--------------------|
| I. 서 론 | III. 다문화에 대한 인식 분석 |
| II. 다문화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 | IV. 결 론 |

〔 논문 요약 〕

바람직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정립되려면 사회구성원이 어느 정도 사회현상에 부합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다문화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 역시 우리사회의 미래 발전적 측면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이다.

이 글은 한국사회에 현존하는 다문화 현상이 국가의 존립과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에서 이주 외국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국민의식은 한국사회의 또 하나의 균열축(fault line)으로 등장할 수 있으며, 장기적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유지와 존립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이 연구는 소위 P세대(participation, passion, potential power),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paradigm-shifter)로 일컬어지는 우리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인식을 동반자(partnership image)와 비동반자 이미지(Non partnership image)로 분류하여 생각과 신념, 그리고 관심도, 당위성 정도, 다문화사회에서의 삶의 변화 정도, 문화 간 교류와 통일의 영향 정도 그리고 전반적인 다문화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폈다. 이 결과 모든 항목에서 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된 집단의 평균점수가 비동반자, 동반자-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된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적어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갖는 다문화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심리적 통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주제어: 다문화, 이미지, 동반자, 비동반자, 사회화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I. 서 론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문화를 전달하는 매체의 광속도적인 발전과 이주외국인의 증가로 인하여 다문화현상 역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21세기의 세계적 추세는 경제수준과 그에 걸 맞는 다문화세계의 형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문화정책의 환경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라는 틀의 변화에 조응해서 각국의 문화정책은 자국의 문화적 지형을 세계적인 흐름에 적응하여 설정하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문화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중적인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회전반으로 다문화에 대한 가치가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문화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가치기준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사회의 새로운 가치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할 정책적 수요가 점증하고 있으며, 정책의 영역이 이전의 문화·예술 중심에서 정신·생활·역사·공간문화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되는 등 좁은 의미의 문화에서 탈피하여 외부문화의 유입 등 광의의 문화현상을 정책대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 틀과 정책수단 그리고 조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 역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급속한 변화와 상황 속에서 우리사회에는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다문화현상에 관한 다양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고 변화가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은 아니며, 특히 문화적 다양성이 상존하는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구성원의 다양한 생각은 사회 및 국가발전에 밑거름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현상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존재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정보비용과 자원비용이 부과되며, 또 다른 많은 차원의 사회현상을 다른 국면과 조화시키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어 보다 큰 차원에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이행기에 있으며, 지금까지 겪어오지 못했던 상황들로 인해 문화적 충돌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다문화라는 현상이 국민의 일상성에 용해되어 있고, 또한 일상성으로부터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문화에 접근과 이에 대한 인식의 분석은 미래 우리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등장한다.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다문화사회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가 이에 대한 이중적인 이미지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젊은이들, 특히 미래 다문화 사회의 핵심적 세대인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

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와 우리사회의 다문화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정도와 전반적인 다문화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심리적인 통합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다문화현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왔다. 이러한 다양성에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계층 간, 가치와 신념 차이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의식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인 대학생들은 소위 N세대를 뛰어넘어 P세대(participation, passion, potential power)로 불리는 세대들로서, 사회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열정과 힘을 바탕으로 사회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paradigm-shifter)이다. 따라서 이들이 다문화현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과도 무관하지 않다. 젊은 층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에는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 개인의 의식이 곧 자신의 행동을 표현하는 지표가 될 수 있듯이 이들의 의식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문화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미래 국가방향설정에도 지표가 될 것이다.¹⁾

II. 다문화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

우리사회에 거부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현상인 다문화문화에는 국민개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 개인의 인식이 곧 자신의 행동을 표현하는 지표가 될 수 있듯이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또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지표가 된다. 다문화현상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 미래의 모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면에서 다문화사회를 접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국민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문화의 고유성과 더불어 국가의 유지와 존립에 기본바탕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마찬가지로 다문화 역시 그 개념상의 논란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국가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마다 차이를 보인다. 인류가 사회

1) 1990년대를 전후로 출생한 대학생들은 학교, 가정에서의 경험과 비디오, 전자오락, TV, 컴퓨터 등 대중매체나 전자매체를 통해 새로운 가치 기준과 행동 규범을 창출하고 있는 세대로 이들은 경쟁 위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그들만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대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은 자유주의, 개인주의, 물질중심주의, 자극중심적인 반응이라는 특징과 자유로운 정치체제 속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세상과 변화를 추구하는 도전정신을 소유하고 있으며, 솔직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중시하고, 한편으로는 감성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를 이루고 살기 시작한 이후 여러 가지 문화가 존재해 왔지만, 그 문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는 특정 문화와 연관된 개념 규정에 대한 시도 역시 여러 학문적 영역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졌지만, 각각의 연구 주체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개념 규정 대상의 전체 영역 가운데 특정 부분을 임의적으로 선택해 강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연구 및 연구 주체의 자의성이라는 요소는 이미 거의 모든 분야에서 행해지는 개념 규정 시도의 일반적인 전제로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결과, 각각의 개념 규정의 결과 및 가치판단은 개념 규정을 시도하는 주체가 의도하는 목표와 연구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역시 또 다른 전제로서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와 연관해서도 이 같은 개념 규정상의 혼란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문화와 관련하여 클룩혼(C. Kluckhohn)은 『인류의 거울』에서 “한 민족의 총체적인 생활 방식, 한 개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단에서 물려받는 사회적 유산, 사고와 인지와 신념의 특정한 방식, 추상적인 행동형식, 특정 집단의 실제적인 행동과 연관되어 주장되는 특정 이론, 특정 공동체의 경험의 저장고, 반복해서 되풀이되는 삶의 문제와 연관된 표준화된 대응방식 체계, 후천적으로 습득한 행동, 규범화된 행동법칙을 이끌어내는 특정 기제, 주변 환경 및 주변인들에 적응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 체계, 역사의 축적물” 등으로 문화를 정의한다.²⁾ 하지만 이와 같은 문화에 대한 개념 규정은 문화와 연관된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결과를 총망라함으로써, 개념의 명료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오히려 범주의 포괄성을 제시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문화에 대한 개념 규정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해 크뢰버(A. Kroeber)는 『문화, 개념과 정의에 관한 비판적 리뷰』에서 무려 160개가 넘는 문화의 개념정의를 기술적, 역사적, 규범적, 심리학적, 구조주의적, 발생적, 범주라는 여섯 가지 기본 틀에 따라 나름대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³⁾ 특히 하인리히(W. Heinrich)와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범주적 특성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①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서의 문화, ②개별적 존재인 인간의 능력과 육체적, 정신적인 소질의 보호 및 육성으로서의 문화, ③동료 인간과 자연 및 자신의 사회 및 역사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보호 및 육성으로서의 문화라고 하는 세 가지 포괄적인 문화의 특성을 제시한다.⁴⁾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문화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해하

2) Vgl. Clyde Kluckhohn, Spiegel der Menschheit, Die Beziehung der Anthropologie zum heutigen Leben. Hrsg. v. Paul Reiwald. Zurich, 1951.

3) Vgl. Alfred Kroeber and Clyde Kluckhohn,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Massachusetts, 1952.

4) Vgl. Werner Heinrich, Kommunale Kulturarbeit im landlichen Raum. Ein Handbuch fur die Praxis.

기보다는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현상은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문화라는 인식대상은 제한하여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개방된 인식분야인 것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논의들 속에서 알몬드와 버바(G. Almond and S. Verba)가 정의한 정치문화의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정치문화의 개념을 ‘사회구성원이 정치적 객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향’으로 정의한다. 이를 원용하면 보다 큰 의미에서 문화란 ‘사회구성원이 자신일 살고 있는 사회의 대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곧 국민이 한국사회에 대해 갖는 가치·태도·신념 등의 총체이며, 국민의 참여행태를 유발시키는 느낌, 감정, 인식 등을 지칭한다.⁵⁾ 여기에서 문화는 사회구성원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대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느낌, 감정, 태도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개념정의 속에서 문화는 구체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그의 개인적 성장배경과 사회생활 틀 속에서 접촉하는 주위사람과, 지역사회, 세계사회에 대해 인지하고 느끼는 인식체계로써 국민이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향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정향에는 세 가지의 가치의 선호에 따라 인지적 정향(Cognitive Orientation), 감정적 정향(Affective Orientation), 평가적 정향(Evaluative Orientation) 등으로 구분된다.⁶⁾

다문화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다문화에 관한 여러 논의들의 중심은 다문화란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던 단일문화에 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⁷⁾ 하지만 이러한 정의에서는 단순히 여러 문화의 공존 혹은 통합이라는 의미에서 그 개념을 살피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는 문화의 개념정의에서와 같이 그 사회구성원이 받아들이는 정도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문화를 위에서 살핀 문화적 정의와 관련하여 볼 때, 우리사회 구성원이 이주외국인과 다문화라는 현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 감정, 태도로써 정리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정향을 다문화인식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인지적 정향은 ‘사회구성원들이 이주외국인과 다문화라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하는 지식과 경험적 신념으로, 국민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를 지칭한다. 감정적 정향은 ‘인지된 다문화사회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하는 호(Good), 악(Badness)이라는 감정적인

Bonn, S. 12f. 1988.

5) Almond, Gabriel,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rinceton, Nj: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6) Almond, Gabriel, and Sidney Verba, 위의 책.

7) 우종현, “다문화사회 도래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방안”,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08. ;서운석,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 현황: 연령별 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4권 1호, 2010, p.13.

평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평가적 정향은 ‘인지와 감정의 결과로써 다문화사회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하는 가치의 선호를 뜻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하게 하고 이에 대한 느끼고 나름 대로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의 정의에 대해 우리사회의 수용정도를 지칭하는 부분까지 확장할 경우, 모든 문화와 사회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감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구성원의 인식 틀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즉 인간은 스스로가 주어진 어떤 객체에 대해 나름대로 감정을 가지고 평가하고 이를 통한 인식의 체계를 형성한다. 이때 모든 사회구성원의 감정적 평가로서 기인된 공통된 인식들이며 사회정체성에 대한 평가 지표는 학자들에 따라 ‘평가성’, ‘권력성’, ‘활동성’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⁸⁾ 평가성(evaluation)은 객체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긍정이나 부정 등의 감정으로 다른 객체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으로부터 야기된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느낌과 관련된다. 권력성(potency)은 객체에 대한 실제적인 영향력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권력이나 중요성, 강제성 등이 해당된다. 활동성(activity)은 객체의 속도와 연령, 민감성, 자발성 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판단을 지칭한다.⁹⁾

다문화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전반적인 다문화현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부터 비롯된다. 이미지(image)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한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한 인상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¹⁰⁾ 곧 이미지는 감각적인 경험이나 연상을 통해 느껴지는 감각적 인상이며, 한 개인의 과거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종합적인 것으로서 신념, 태도, 인상을 포함하는 인지적 반응들의 복합체로 표현되며 이는 곧 다문화현상에 대한 이미지로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사회심리학적 접근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반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¹¹⁾ 결국 이미지는 대상에 대해 한 개인이 믿고 있는 주관적 지식이며 대상에 대한 경험의 총체적인 결과이다. 그리고 특정 대상에 대해

8) Heise, D. R., "Project Magellan: Collecting Cross-cultural Affective Meanings Via The Internet", *Electric Journal of Sociology* 5(3), 2001. MacKinnon, N. J., *Symbolic Interactionism as Affect Control*. Albany: State University of NY Press, 1994. Smith-Lovin, L., "Affect Control Theory: An Assessment."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13, 1987, 171-192.

9) Heise, D. R. 위의 책.

10) 안득기, "대북 이미지의 이중구조와 통일외식 분석",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2집 2호, 2009. 이미지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조.

11) Atkinson, Atkinson & Hilgard 저, 홍대식 역, 『심리학개론』 (서울: 박영사, 1985), pp. 635-637: 안득기, 위의 책.

한 개인이 지니는 이미지는 정보로 구성된 메시지를 수용함으로써 형성되고 변화한다. 과거의 이미지는 현재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부분이 되며, 현재의 이미지는 과거의 이미지에 추가로 수용된 정보로 형성된다.¹²⁾

다문화의 정의와 더불어 ‘평가성’, ‘권력성’, ‘활동성’이라는 사회구성원의 세 가지 평가 기준 역시 다문화 사회를 측정하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한국사회에 현존하는 다문화현상에 대한 우리사회 구성원인 국민의 감정의 실체를 논의하는 데에도 활용 가능하다. 이주외국인과 다문화현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 감정, 태도 또한 그들 하나의 사회정체성관점에서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이와 같은 감정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문화라는 사회현상과 더불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지속적으로 구성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그 감정적인 측면들을 밝혀낼 때, 그 결과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책과 개선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결국 다문화에 대한 폐쇄적인 인식을 극복하는 것이 정체성에 미래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사회구성원의 차원들 다문화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점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다문화주의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인정하는 차이에 대한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로서 소수 다문화 이주자들에게 대한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¹³⁾ 여기에는 사회구성원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합의와 지지,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수한 삶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라는 원칙은 다문화주의의 선결조건으로 자리한다.

Ⅲ. 다문화에 대한 인식 분석

이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에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며, 세대 간의 차이와 더불어 계층 간, 가치와 신념의 차이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곧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는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

12) K. E. Boulding, *The Image*, Ann Arbor,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 1961, pp.5-10. 안득기, 위의 책.

13) 유문무, “다문화사회의 전환과 다문화 담론 모색”, 『한국아시아학회보』 2010, p.90.

었으며, 이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문화를 둘러싼 사회적 수용성이나 관계 양상에 대한 연구와 한국사회에서의 소수인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구분된다. 특히 현재 주를 이루는 연구들은 인종에 대한 선호도나 고정관념, 편견에 관한 연구들과 함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 사람들이 다문화를 대하는 태도 등에는 다문화현상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 갈등이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으며, 다수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게 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에 대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시터즌십에 대한 인식,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종족적 배제주의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¹⁴⁾ 특히 이들 연구 중 이 글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대상인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타인종 및 민족들에 대한 고정관념 측정 도구의 개발과 외국인에 대한 학생들의 고정관념의 특징을 밝힌 연구,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태도와 인식, 실태현황을 살피고 이들 간의 관계와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¹⁵⁾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들의 논의를 요약하면 한국인들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고, 법과 제도변화의 필요성, 외국인 이주자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주자에 대한 일반적인 관용적 태도와 더불어 위계화 된 차별의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단일민족주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친밀도에 있어서도 출신 국가에 따라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실제 다문화수용성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라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결국 이들 연구들의 논의에서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당위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정작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대한 다양한 차원의 교육에 대한 내용과

14) 이에 관해서는 황정미 외,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윤인진 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011, 서운석,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 현황: 연령별 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4권 1호, 2010, 모경환 외, “중등 교사들의 다문화적 인식에 대한 연구-수도권 국어·사회과 교사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2007 등을 참조.

15) 임성택,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한국학생들의 고정관념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제41권 제3호, 2003, pp.275~301. 양계민 외,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pp.170-191. 이진아, “다문화교육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대학원, 2008, pp.61-61 등을 참조

방법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제고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분석을 위해 동반자 이미지(partnership image)와 비동반 이미지(Non partnership image)라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미래 다문화사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주외국인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한국사회를 함께 이끌어 나갈 동반자로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이주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 이외에도 우리와는 다른 이방인의 모습과 비동반자 이미지가 공존할 수 있다. 특히 비동반자의 이미지가 많을 경우, 우리사회내의 다문화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차이 속에서 사회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다문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주외국인과 더불어 다문화에 대해 이와 같은 이중적인 이미지 구조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전제할 때, 이러한 상반된 이미지는 상대방이 보여주는 정보와 행동을 그대로 보지 않고 과장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왜곡을 낳기 쉽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통해 이 연구는 기본적인 분석의 대상인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의 인식과 국민과의 인식은 서로 분리되지 않은 상호작용의 기본적인 분석 틀을 설정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동반자-비동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사회 변화는 상호연관성이 있으며, 대학생들과 같은 젊은이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역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연구는 서울지역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중요한 점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현상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에는 국민적 인식이 분포되어 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계층 간, 가치와 신념 차이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연구자가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한 이유는 타 영역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 학문적 영역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빈번하게 가까이 접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 교과목 강의 등을 통해 비교적 다문화에 대한 상황과 이해가 어느 정도 있으리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 연구가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특정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히 이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드물다는 점에서 우리사회를 투영하는 하나의 연구결과물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림 1〉 다문화 인식에 따른 분류¹⁶⁾

		동반자 인식	
		약	강
비동반자 인식	약	동반자와 비동반자의 인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 50.6%	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 25.1%
	강	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 24.3%	

위에 제시한 〈그림 1은〉 이주외국인과 다문화사회에 대해 동반자, 비동반자, 동반자와 비동반자의 이중적 인식 중 대학생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는 이주외국인을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비율이 25.1%로 나타났으며, 비동반자로서 다문화사회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24.3%로 나타나 동반자와 비동반자라는 인식간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동반자적-비동반자적인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50.6%로, 아직까지 상당한 비율이 우리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다문화에 대한 교육과 정책의 정도에 따라 인식의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2〉 다문화 인식에 따른 신념 분류

		동반자 인식	
		약	강
비동반자 인식	약	동반자와 비동반자의 인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 52.5%	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 82.3%
	강	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 28.4%	

16)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조사대상 1,050명 중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여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1,003부이다. 자료처리 및 분석은 회수된 설문지를 중심으로 통계프로그램 SPSS(12.0 ver.)을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중심으로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과 다중비교검증(Multiple Range Test)을 통해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한편, 〈그림 2〉는 미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인지, 다문화사회에 대한 신념의 정도를 동반자와 비동반자라는 각각의 인식을 가진 대학생 대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24.3%의 대학생 중 82.3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대학생 중 28.4%만이 긍정적, 그리고 두 가지의 인식을 모두 가지고 있는 대학생 중 52.5%의 비율이 긍정적임을 답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 대학생의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면 대학생들이 갖는 신념의 정도에 따라 다문화사회, 혹은 다문화정책의 탄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학생 및 국민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의 정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신념이 특정한 변수에 따라서 납득할 만한 설명으로 이어진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상당히 변화할 수 있는 부분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 동반자, 비동반자의 인식의 상관관계 분석

세부적 항목		집단	Subset for alpha = .05				F값	유의도
			1	2	3	4		
다문화에 대한 인식	다문화에 대한 관심도	동반자 인식을 가진 사람	4.14				89.146	.000
		동반자-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		3.32				
		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			2.41			
	다문화에 대한 당위성 정도	동반자 인식을 가진 사람	3.97				73.430	.001
		동반자-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		2.85				
		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			2.48			
	다문화사회의 삶의 변화 정도	동반자 인식을 가진 사람	3.84				99.894	.000
		동반자-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		2.71				
		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			2.24			
	문화 간 교류와 영향의 정도	동반자 인식을 가진 사람	4.52				29.674	.000
		동반자-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		3.68				
		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			2.99			

* 평균값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매우 긍정(5점)에서 매우 부정(1점)까지의 누적 점수를 평균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음.¹⁷⁾

17) 집단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 ANOVA)을 실행하였고 각 변수간의

위의 <표 1>은 동반자, 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질문 항목을 구성하여 분석된 결과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

결과를 보면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당위성 정도, 다문화사회에서의 삶의 변화 정도, 문화 간 교류와 통일의 영향 정도를 묻는 모든 항목에서 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된 학생들의 평균점수가 비동반자, 동반자-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된 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만으로 보면 적어도 동반자로서 다문화사회를 보고 있는 대학생집단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동반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우리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동반자, 비동반자의 인식과 다문화정책 상관관계 분석

세부적 항목		집단	Subset for alpha = .05				F 값	유의도
			1	2	3	4		
문화 간 교류협력	문화 협력 활성화	동반자 인식을 가진 사람	4.45				128.528	.000
		동반자-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			3.64			
		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			3.24			
	체험 및 연수	동반자 인식을 가진 사람	4.26				133.765	.000
		동반자-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		3.75				
		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			3.36			
다문화 지원정책	교육지원	동반자 인식을 가진 사람	4.18				121.645	.000
		동반자-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		3.61				
		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		3.11				
	탈북자 및 다문화가정 제도적 지원	동반자 인식을 가진 사람	3.84				94.365	.001
		동반자-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		3.34				
		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		3.22				

* 평균값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매우 긍정(5점)에서 매우 부정(1점)까지의 누적 점수를 평균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음.¹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의 신뢰도(reliability)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는 방법인 Cronbach' alpha 계수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의 신뢰도 계수가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 변수들을 측정하는 항목간의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 2>는 동반자, 비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질문 항목을 구성하여 분석된 결과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 결과에서 문화 간 교류협력, 다문화지원 등에 관해 질문한 항목에 있어서 동반자의 인식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문화 협력 및 활성화, 문화체험 및 연수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탈북자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착지원 등에 대해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 이에 대해 관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가지 인식을 가진 모든 집단에서 문화교류 및 협력에 대한 부분이 각 항목별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문화 간 교류협력과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정책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다문화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그 해결방안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사회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심리적 반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곧 외국인이나 타민족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감정을 이해할 때만이 그것을 기초로 미래 다문화사회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외국인과 다문화사회에 대해 동반자, 비동반자, 동반자와 비동반자의 이중적 인식 중 대학생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 상당한 비율이 우리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에 대한 교육과 현실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미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인지, 이에 대한 신념을 묻은 결과에서는 아직까지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 대학생의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다문화정책에 대한 인식결과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당위성 정도, 다문화사회에서의 삶의 변화 정도, 문화 간 교류와 통일의 영향 정도를 묻는 모든 항목에서 비동반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18) 집단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 ANOVA)을 실행하였고 각 변수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의 신뢰도(reliability)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는 방법인 Cronbach' alpha 계수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의 신뢰도 계수가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 변수들을 측정하는 항목간의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대학생들이 갖는 신념의 정도에 따라 다문화사회, 혹은 다문화정책의 탄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곧 교육 등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곧 국민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의 정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신념이 특정한 변수에 따라서 납득할 만한 설명으로 이어진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상당히 변화할 수 있는 부분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적어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갖는 다문화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심리적 통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다문화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은 편견과 같은 단순한 편파 된 지각이 아닌 문화를 달리하는 대상으로서의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우리현실의 의식으로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반되는 인식이 우리 안에 공존함을 검증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측면에서 다문화는 구체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그의 개인적 성장배경과 사회생활 틀 속에서 접촉하는 외국인과 타민족 및 지역사회, 세계사회에 대해 인지하고 느끼는 인식체계로써 국민이 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향이며, 국민의 다수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이 연구가 보이는 한계는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무엇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는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와 같은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앞으로의 상황전개를 예측하기 위해서 연구방법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사회의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주는 종속변수를 쉽게 계량화하여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수많은 변수들과 이들 간의 관계를 추적하는 일 또한 큰 어려움으로 존재한다. 인식의 형성에는 정치·사회·경제적 환경 등의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게 되는 바,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다. 결국 다문화 현상에 관련된 인식연구에 있어서도 종합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그리고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사회에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현상과 관련해서도 바람직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정립되려면 사회구성원이 어느 정도 이러한 사회현상과 부합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다문화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의 정도는 우리사회의 미래 발전적 측면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이다.

앞장에서 분석된 결과를 볼 때 다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의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간의 행동유형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이것은 소위 사회화(Socialization)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¹⁹⁾ 사회화와

19) K. Langton, Political Socialization, London: Oxford Univ. Press, 1969, p.5.

관련되는 주요 개념은 '평생사회화', '역할사회화', '문화발전' 등으로 요약되며, 사회화를 통해 국민들이 공동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은 국민통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사회화는 결국 국민에 대한 다양한 교육으로 요약되며, 이를 통한 국민 문화의 형성과 정착이 곧 국가사회의 다양성을 표출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사회화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상호연속과정이며 순환과정이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사회화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화는 다문화 현상에 의해서 조건 지어지고 영향을 받는다. 이 둘의 관계는 매우 복잡적이며 다양한 모습을 지닌다. 곧 젊은 층에 대한 사회화를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라 다문화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문화가 변화되고 다양성을 띠게 될 것이다. 결국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의 사회화와 더불어 이들이 가지는 나름의 문화는 장기적으로 국민이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할 터전인 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참고문헌》

- 강휘원. 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 정책 연구』 20권 2호.
- 김도경외. 2009. "다문화주의와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 소 소 정책연구』 제9권 제1호.
- 김비환. 2007.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 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법철학연구』 제10권 제2호.
- 김이선외.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Ⅰ):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모경환외. 2007. "중등 교사들의 다문화적 인식에 대한 연구-수도권 국어·사회과 교사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
- 서운석. 2010.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 현황: 연령별 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4권 1호.
- 안득기. 2009. "대북 이미지의 이중구조와 통일인식 분석."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2집 2호.
- 양계민외.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우중현. 2008. "다문화사회 도래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방안."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 유문무. 2010.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다문화 담론 모색." 한국아시아학회.
- 유정석. 2003. "캐나다-다문화주의 제도화의 산실." 『민족연구』 11호.
- 윤인진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
- 이상길외. 2007. "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1권 5호.

랭턴(K. Langton)은 사회화를 "사회에 대한 정향과 행위유형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즉 사회화란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문화를 변화, 유지시켜가는 성장과정으로 국민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화형태를 변화시키고 이를 유지해 가는 과정이다.

<동북아연구>

- 이진아. 2008. “다문화교육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대학원.
- 임성택. 2003.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한국학생들의 고정관념 분석.” 『한국교육학 연구』 .
- 장태한. 2001. “한국 대학생의 인종·민족 선호도에 관하여.” 『당대비평』 제14호.
- 전미경외. 2010.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과교육학회보』 .
- 홍대식 역. 1985. 『심리학개론』 서울: 박영사.
- 황정미외.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매일경제신문. 2010. 12.15일자.
- Almond, Gabriel, and Sidney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Princeton, Nj: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ise, D. R. 2001. “Project Magellan: Collecting Cross-cultural Affective Meanings Via The Internet.” Electric Journal of Sociology 5(3)
- Boulding, K. E. 1961. The Image(Ann Arbor,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
- K. Langton. 1969. Political Socialization. London: Oxford Univ. Press.
- MacKinnon, N. J. 1994. Symbolic Interactionism as Affect Control. Albany: State
- Smith-Lovin, L. 1987. “Affect Control Theory: An Assessment.”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13: University of NY Press.
- Vgl. Alfred Kroeber and Clyde Kluckhohn. 1952.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Massachusetts.
- Vgl. Clyde Kluckhohn. 1951. Spiegel der Menschheit. Die Beziehung der Anthropologie zum heutigen Leben. Hrsg. v. Paul Reiwald. Zurich.
- Vgl. Werner Heinrich. 1988. Kommunale Kulturarbeit im landlichen Raum. EinHandbuch fur die Praxis. Bonn, S. 12f.
- <http://blog.naver.com/sbh5304?Redirect=Log&logNo=20105137215>, 2011. 09. 27 검색.
- ?bbsSeq=25820&artclNo=12346132566, 2011. 09. 21 검색.

《Abstract》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Belief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Ahn, Deug-Kee

The rising number of foreign people immigrated has dramatically increased in South Korea year after year. Furthermore, peoplehood concerning various kinds of immigrants could be the significant role to handle the emotional aspects in Korean society as well as in politics. Especially in this point, it could be in trouble that such peoplehood turns to be a primary factor to affect its society. It means that there is some possibilities of appearing another fault line in Korea, which cracks the social communities. In view of long term, in addition, it could be the actor to influence existing and maintaining Korean tradition.

There are two images divided into partnership image, and non-partnership image from youth as the P-generation(participation, passion, potential power), or paradigm-shifter. At the same time, this study conduct a research regarding belief and faith about the multiculturalism, changeability of life, cultural interchange, political influence on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n future, and understanding of the multi-cultural policies.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ambivalent attitude toward multi-culturalism could be an obstacle against social harmony and agreement.

Key Words: Multiculturalism, Image, Partnership, Non-partnership, Socialization

투고일 : 2011.10.30 / 심사일 : 2011.11.25 / 심사완료일 : 2011.12.25